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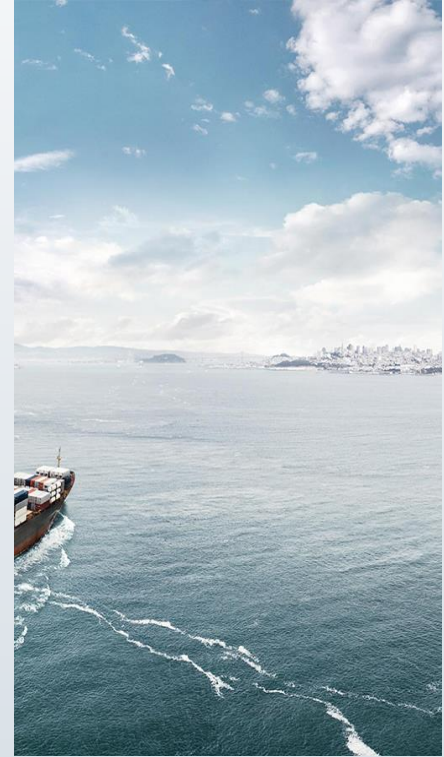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78

November 14,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8
Tankers	12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20
Issue & Trend	22
Contact Details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잭팟서 감원으로'...해운업계, 수요감소 속 공급과잉에 '신음'

지난 2년간 기록적인 호황을 누린 글로벌 해운업계가 이제는 감원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세계 해운업계가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에 직면해 팬데믹 이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으며, 2~3년의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해운업체들은 2021년과 2022년 2년간에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다.

컨테이너 운송 및 해상무역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인 존 맥카운(JOHN MCCOWN)의 집계로, 2021년과 2022년에 총 3천 640억 달러(48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에 앞서 약 10년간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다.

하지만 운임이 비용 이하로 추락하면서 이번 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가까운 미래에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기존 산업계에서 올해 해운업처럼 역사적인 수익을 기록했다가 다시 손익분기점 이하로 요동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선사인 하팍로이드(HAPAG-LLOYD AG)의 최고경영자(CEO)인 로프 하벤 안센은 인터뷰에서 "향후 24~36개월이 걱정된다"며 "우리는 경기 하강(DOWNTURN)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A.P.뮐러-머스크는 잉여 현금 흐름이 지난해 약 270억 달러(36조원)에서, 올해 약 80% 감소할 수 있고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전했다.

지난 10일간 주요 해운사들인 머스크,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 CGM은 최소 내년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경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잇따라 밝혔다.

머스크는 이미 이달 초 1만 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업계가 가격 전쟁을 피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수년 동안 업계는 가격 경쟁으로 잇단 통합과 함께 최소 한 건의 주요 업체 파산을 겪었다.

I . NEWS

세계 3대 선사인 CMA CGM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라몬 페르난데스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가격 전쟁은 결국 시작한 쪽만 아니라 모두에 해를 끼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의 원인은 공급 과잉이 주로 꼽히고 있다. 컨테이너선은 더 새롭고 더 큰 선박의 형태로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상품 수요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이미 초비상이다. 내년엔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데 드는 비용이 15%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탈탄소화를 위해 향후 수십 년 동안 1조 달러(1천 322조원)를 투자해야 할 처지다.

업체들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항로 운항을 축소하거나 수요가 적은 항로에서는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침체가 장기화하면 용선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놀리는 선박을 늘리고, 또한 낡은 선박을 고철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다.

해운업계와 달리 제조업체나 소매업체들은 운송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또한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는 세계 중앙은행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2. 11월 외환시장은 '급경사'... 안전장치 충분할까

11월의 시작부터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장중 60원 이상 폭락하고, 그 이후 반등하면서다. 환율이 깎아지르는 듯 가파르게 오르내리며 위태로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 외환시장 개편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00원대 중반부에 머무르면서 1363.5원으로 연고점을 경신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1월이 되자마자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다. 11월 1일 달러당 장중 1358.7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은 이튿날 1340원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날 저가는 1317.4원으로 올 하반기 들어 최저 수준을 보였다.

다음 영업일인 6일에는 1297.2원까지 내려가며 석 달 만에 달러당 1200원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일과 3일, 6일에 걸쳐 3영업일 동안 환율이 달러당 60원 가까이 폭락한 셈이다. 다만 11월 7일 들어서는 한국 증시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10원 이상 반등해 달러당 1307.9원에 마감됐다. 이후 한동안 강보합세를 보였다.

I . NEWS

11 월 들어 이뤄진 원/달러 급락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미국 금융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며, 둘째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고용시장 둔화와 10 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악화한 것, 셋째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한 상승세가 원화 상승 압력을 키운 것이다.

지난 11 월 2 일 종료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 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5.25~5.5%)이 확정됐다. 시장이 이를 비둘기파적 동결로 해석하면서, 회의 직후 페드워치에서 내년 6 월 25BP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45.05%로 이전 주의 35.57%에서 10%P 가량 올랐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에 대해 "7 월 FOMC 이후 나타난 장기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상황 긴축 효과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수개월 간 인플레이션을 하락 추세와 노동시장 완화, 장기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상은 부재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채 금리 10 년물은 10 월 하순 들어 5% 선을 돌파했다. 이는 16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국 고용지표는 10 월 중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 만 명 증가해 전월 대비 둔화했고, 실업률은 3.9%로 소폭 상승했다. 장기금리와 고용지표가 모두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동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원/달러가 연고점을 기록한 10 월 4 일 107 선을 웃돌며 함께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이후 하락했다. 반면 11 월 6 일 한국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고 환율이 하락했다. 다만 이튿날 증시가 다시 내리고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서 환율은 다시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큰 변화 앞둔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괜찮나 =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여타 국가 대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 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P 로, 동기간 34 개국(선진국 10 개국, 신흥국 24 개국) 전체 평균 0.6%P, 선진국 0.65%P, 신흥국 0.58%P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외환시장이 내년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외환시장의 대대적인 개편과 참여자 및 개방시간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2003 년 이래 21 년 만에 발행할 계획이다.

I . NEWS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시장 참여를 국내 금융기관에만 허용해왔으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적고 위험관리가 엄격한 글로벌 은행·증권사에 한해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도 개방하고, 거래시간도 국내 증시 개장시간으로 제한해왔던 것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한국 기준 오전 2시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및 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 시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시장자율기구로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신설해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 및 감시 강화 활동을 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투기 목적 헤지펀드 등 기관의 시장 참여는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 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제 1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시장참여자의 거래 편의보다는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외환시장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되다 보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율이 결정되는 은행 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자율규범을 확립하고, 선도은행 선정기준을 개편해 새로운 시장 구조 하에서의 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글로벌 투자자 등 최종적인 외환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 3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 등과 관련한 제도·관행도 차질없이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지난 9월 2023년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20조 원 내외로 활용하고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I . NEWS

이를 위해 내년 외평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101 조 6728 억 380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증액할 예정인데, 공자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대 약 18 조 원 한도로 만기 1~2 년짜리를 발행할 예정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환율이 급락하면 보유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해 환율을 상승 안정시키고,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해 환율을 하락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을 조기상환할 경우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재원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며 “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예수 등을 통해 확보한 원화재원과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확보한 외화재원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화재원의 감소가 해당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 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여유 자원 20 조 원 내외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타 국가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 원화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기초·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화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증권리서치센터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한다는 발표에 대해 MMF 의 환매 등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유동성 위축 등을 우려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2023~2024 년 2 년간 조정하려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과거 3 년 대비 4~5 배에 달하는 40 조 원대로, 단기간 내에 원화재원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I . NEWS

3. 뜨거운 지구...올해 인류 역사 상 가장 뜨거웠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6 월 초 지구 표면의 대기 온도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 도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1.5 도는 2015 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 온도 상승의 상한선이자 기후변화 최후의 방어선이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선 지구 열대화의 가속화다.

지구 기후 위기를 향한 경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기상기구(WMO)는 최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발표를 인용해 올해 10 월을 역대 가장 따뜻했던 10 월로 명명했다. 지난 10 월은 지난 1991~2020 년 평균보다 0.85 도 높았고, 이전 가장 따뜻했던 10 월보다 0.40 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 월부터 10 월 현재까지 10 개월 간 지구 평균기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850~1900 년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43 도 높고, 2016 년 10 개월 평균보다 0.10 도 높은 수준이다.

WMO 는 2023 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극 해빙과 해수면 온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0 월 평균 해수면 온도(60°S~60°N 범위)는 20.79 도로 10 월 기록 중 가장 높았으며, 남극 해빙 면적은 6 개월 연속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월간 수치로는 평균보다 11%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극 해빙 면적은 10 월 평균보다 12% 낮아 7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후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 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풍 바베트는 북부 유럽을 강타했으며, 폭풍 알라인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영향을 미쳐 폭우와 홍수를 불러온 바 있다.

올해 이외 역대 가장 따뜻했던 해는 2016 년으로 유난히 강한 엘니뇨와 기후변화로 인한 '이중고난'이 발생했던 때로 알려졌다.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해수 온난화 현상을 일컫는 엘니뇨는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엘니뇨 현상은 적어도 내년 4 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육지와 해양 모두의 기온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I . NEWS

엘니뇨는 지난 7~8 월에 빠르게 발달해 9 월에 중간 정도의 강도에 도달했으며, 내년 11 월부터 이듬해 1 월에 강력한 현상으로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남극 오존 구멍은 지난 9 월 21 일 최대 크기인 1000 만 평방마일(약 2600 만km²)에 도달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연간 위성 및 풍선 기반 측정에 따르면 이러한 오존 구멍은 1979 년 이후 12 번째로 큰 규모다. 오존층 파괴가 최고조에 달했던 9 월 7 일부터 10 월 13 일까지 올해 오존 구멍의 평균 면적은 2310 만km²로 북미 대륙 크기(약 2471 만km²)와 맞먹는다.

오존층은 지구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 성층권의 이 부분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UV)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오존층이 얇아지면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가 줄어들어 일광화상, 백내장,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년 9 월이면 오존층이 얇아져 남극 대륙 위에 '오존 구멍'이 형성된다.

한편 WMO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구기후 잠정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회의인 COP28 개막일인 오는 30 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의 원인, 즉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오는 15 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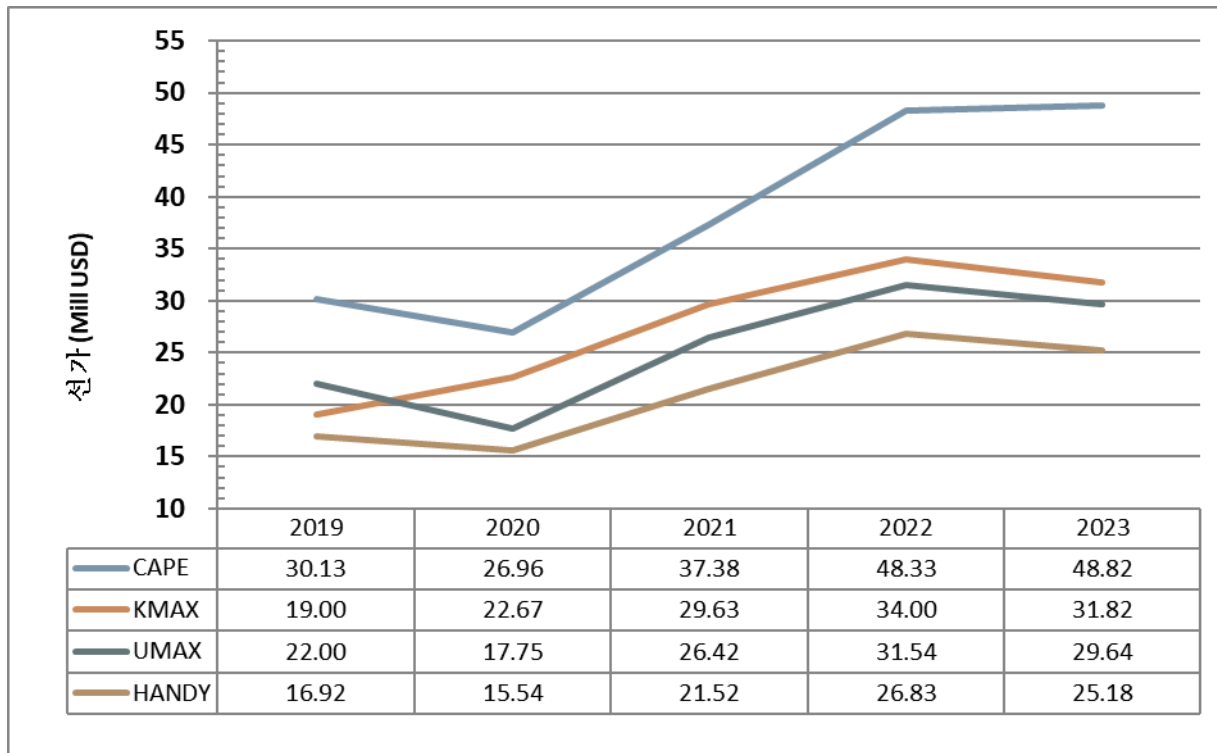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Capesize 180K <small>*Eco-design based since 2021</small>	30.13	26.96	37.38	48.33	48.82
	-14.34%	-10.51%	38.64%	--	1.00%
Kamsarmax 82K <small>*76k before 2020</small>	19.00	22.67	29.63	34.00	31.82
	0.42%	19.30%	30.70%	14.75%	-6.42%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1.54	29.64
	--	-19.32%	48.83%	19.40%	-6.04%
SMAX 58K <small>*Data available before 2021</small>	17.17	15.92	--	--	--
	-4.20%	-7.28%	--	--	--
Handysize 37K	16.92	15.54	21.52	26.83	25.18
	12.18%	-8.13%	38.47%	24.69%	-6.15%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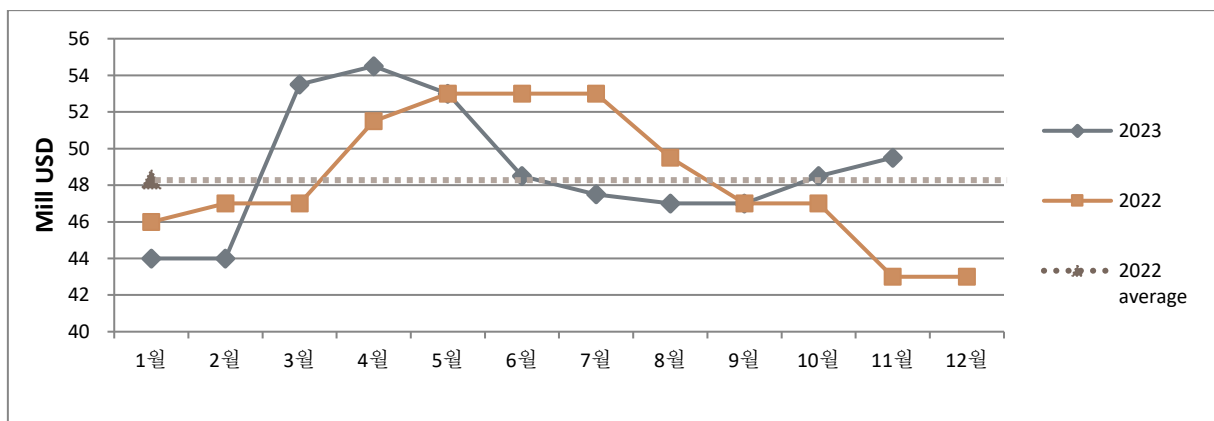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54.50	53.00	48.50	47.50	47.00	47.00	48.50	49.50	48.82
	전월대비	2.3%	0.0%	21.6%	1.9%	-2.8%	-8.5%	-2.1%	-1.1%	0.0%	3.2%	2.1%	--
	전년대비	-4.3%	-6.4%	13.8%	5.8%	0.0%	-8.5%	-10.4%	-5.1%	0.0%	3.2%	15.1%	1.0%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4.00	33.00	31.50	31.50	31.50	32.00	32.00	32.00	31.82
	전월대비	0.0%	0.0%	8.3%	4.6%	-2.9%	-4.5%	0.0%	0.0%	1.6%	0.0%	0.0%	--
	전년대비	-11.8%	-13.0%	-8.5%	-6.8%	-13.2%	-17.1%	-12.5%	-4.5%	3.2%	3.2%	4.9%	-6.4%
UMAX (60-61K)	선가	28.50	28.50	31.50	32.00	31.00	29.50	29.50	28.00	28.50	29.50	29.50	29.64
	전월대비	1.8%	0.0%	10.5%	1.6%	-3.1%	-4.8%	0.0%	-5.1%	1.8%	3.5%	0.0%	--
	전년대비	-6.6%	-12.3%	-4.5%	-5.9%	-8.8%	-14.5%	-10.6%	-11.1%	-5.0%	-1.7%	7.3%	-6.0%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6.50	26.00	25.00	24.50	24.00	25.00	25.50	25.50	25.18
	전월대비	4.3%	0.0%	6.1%	1.9%	-1.9%	-3.8%	-2.0%	-2.0%	4.2%	2.0%	0.0%	--
	전년대비	-10.9%	-12.5%	-7.1%	-7.0%	-8.8%	-12.3%	-14.0%	-11.1%	-3.8%	4.1%	8.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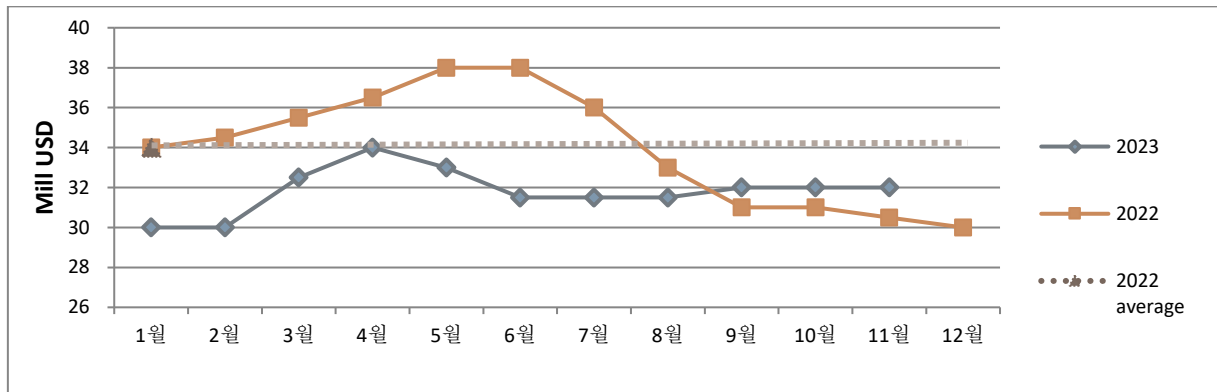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53.00	49.50	47.00	47.00	43.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3.00	31.00	31.00	30.5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3.00	31.50	30.00	30.00	27.5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7.00	26.00	24.50	23.50	26.83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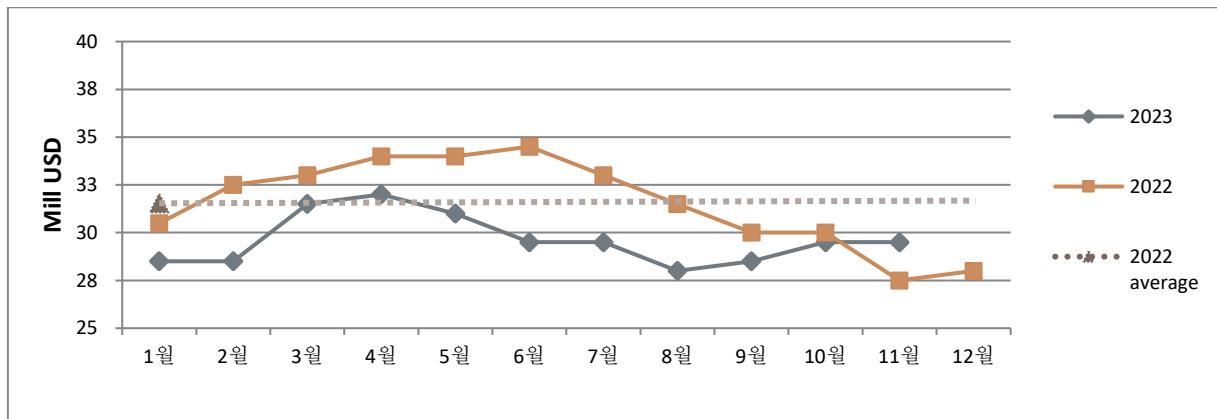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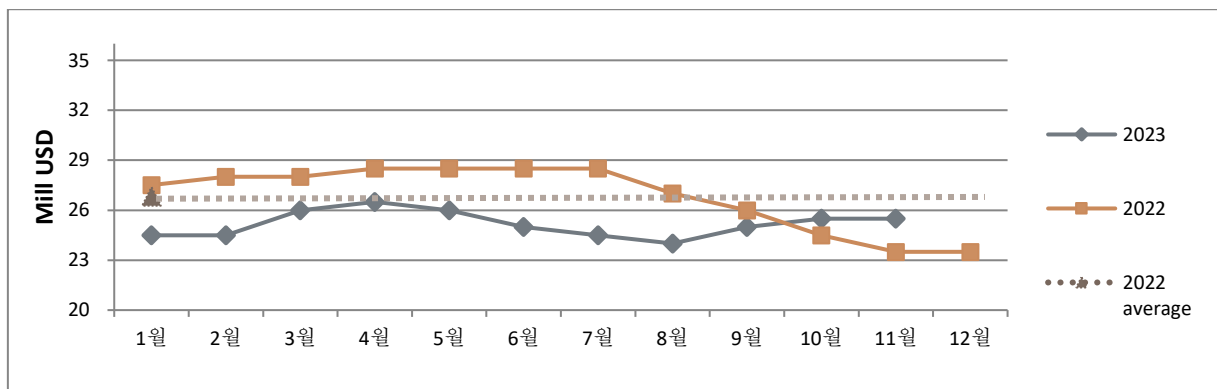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AGIS	182,334	2023	JAPAN	B&W		67.5	Undisclosed buyer, eco-engine
BC	TRUE CARTIER	181,380	2014	JAPAN	B&W		37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eco-engine
BC	XIN BIN HAI	180,086	2010	CHINA	B&W		21.5	Greek buyer
BC	HEIDE	92,500	2010	CHINA	B&W		14	Undisclosed buyer
BC	ULTRA PANTHER	83,610	2008	JAPAN	B&W		16.3	Undisclosed buyer
BC	AP LOVRIJENAC	82,000	2023	CHINA	B&W		37	Undisclosed buyer
BC	THOR	76,838	2005	JAPAN	B&W		11.9	Greek buyer
BC	GLORY HARVEST	64,000	2014	CHINA	B&W	C 4x30t	21.5	Greek buyer
BC	OCEAN DESTINY	58,786	2008	JAPAN	B&W	C 4x30t	13.8	Greek buyer (Pioneer)
BC	ROYAL KNIGHT	58,721	2013	JAPAN	B&W	C 4x30t	19.5	Greek buyer
BC	STAR THETA	52,425	2003	PHILIPPINES(JAP)	B&W	C 4x30t	8.5	Undisclosed buyer
BC	APRILIA	36,193	2017	CHINA	B&W	C 4x30t	20.2	Greek buyer
BC	NODUS	33,421	2010	CHINA	WART	C 4x25t	8.8	Middle Eastern buyer, open hatch
BC	AFRICAN IBIS	32,347	2004	JAPAN	MITSU	C 4x30.5t	8.6	Undisclosed buyer
BC	LAKE DANY	28,358	2008	JAPAN	B&W	C 4x30.5t	9	Greek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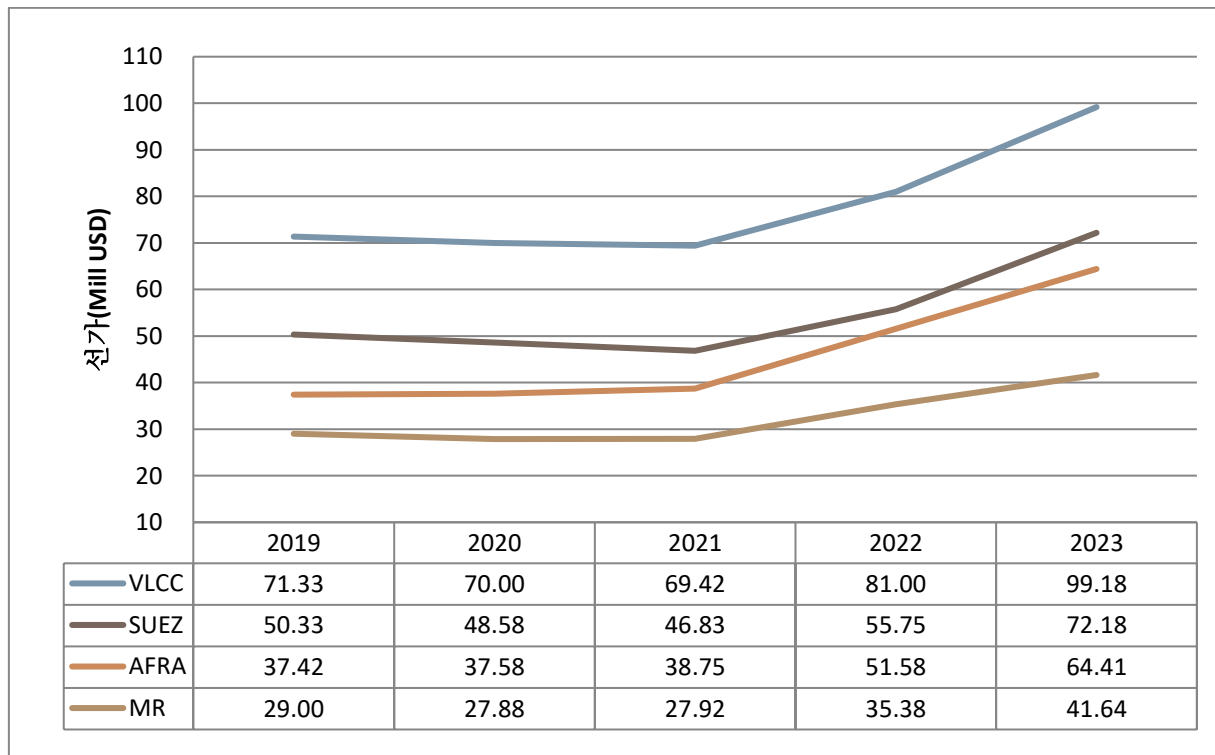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99.18
	10.73%	-1.87%	-0.83%	16.69%	22.45%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72.18
	15.60%	-3.48%	-3.60%	19.04%	29.47%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4.41
	17.85%	.45%	3.10%	33.12%	24.86%
MR (51K) <small>*Based on 49K till 2018</small>	29.00	27.88	27.92	35.38	41.64
	9.43%	-3.88%	.15%	26.72%	17.70%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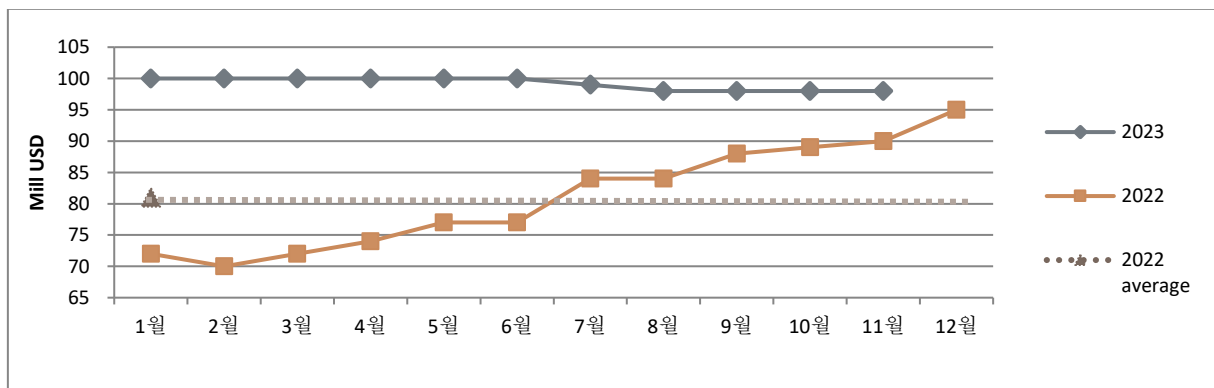




III. TANK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00	98.00	98.00	98.00	98.00	99.18
	전월대비	5.3%	0.0%	0.0%	0.0%	0.0%	0.0%	-1.0%	-1.0%	0.0%	0.0%	0.0%	-
	전년대비	38.9%	42.9%	38.9%	35.1%	29.9%	29.9%	17.9%	16.7%	11.4%	10.1%	8.9%	22.4%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50	74.00	73.00	72.00	73.00	73.00	78.00	78.00	72.18
	전월대비	4.6%	0.0%	0.7%	0.0%	8.0%	-1.4%	-1.4%	1.4%	0.0%	6.8%	0.0%	-
	전년대비	41.7%	44.7%	39.8%	34.3%	42.3%	35.2%	24.1%	23.7%	17.7%	25.8%	25.8%	29.5%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63.50	63.50	63.50	63.50	63.50	70.50	70.50	64.41
	전월대비	4.2%	0.0%	0.0%	0.0%	1.6%	0.0%	0.0%	0.0%	0.0%	11.0%	0.0%	-
	전년대비	38.9%	38.9%	38.9%	33.0%	29.6%	29.6%	19.8%	17.6%	11.4%	23.7%	21.6%	24.9%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2.00	42.00	41.00	40.00	40.00	41.50	43.50	43.50	41.64
	전월대비	3.8%	0.0%	0.0%	1.2%	0.0%	-2.4%	-2.4%	0.0%	3.8%	4.8%	0.0%	-
	전년대비	38.3%	38.3%	43.1%	29.2%	25.4%	22.4%	8.1%	0.0%	3.8%	11.5%	8.8%	17.7%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4.00	84.00	88.00	89.00	90.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8.00	59.00	62.00	62.00	62.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3.00	54.00	57.00	57.00	58.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7.00	40.00	40.00	39.00	40.00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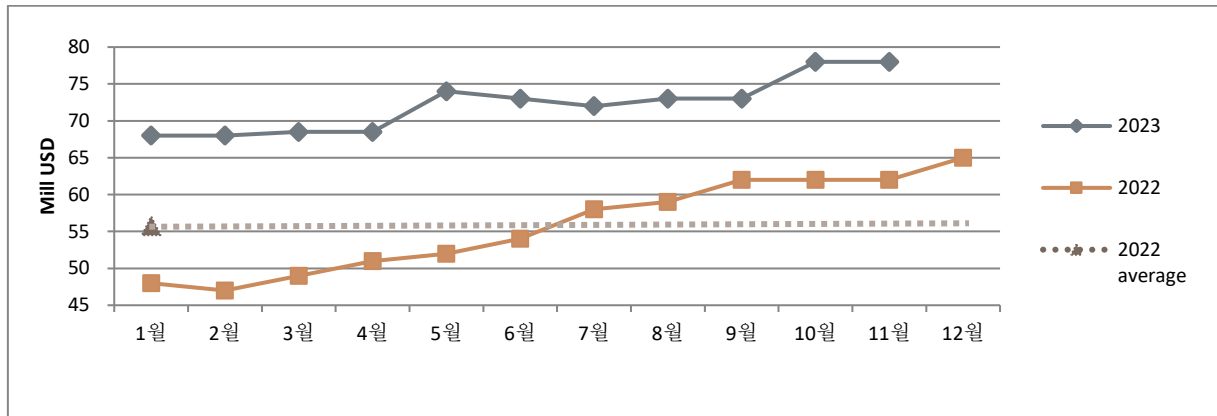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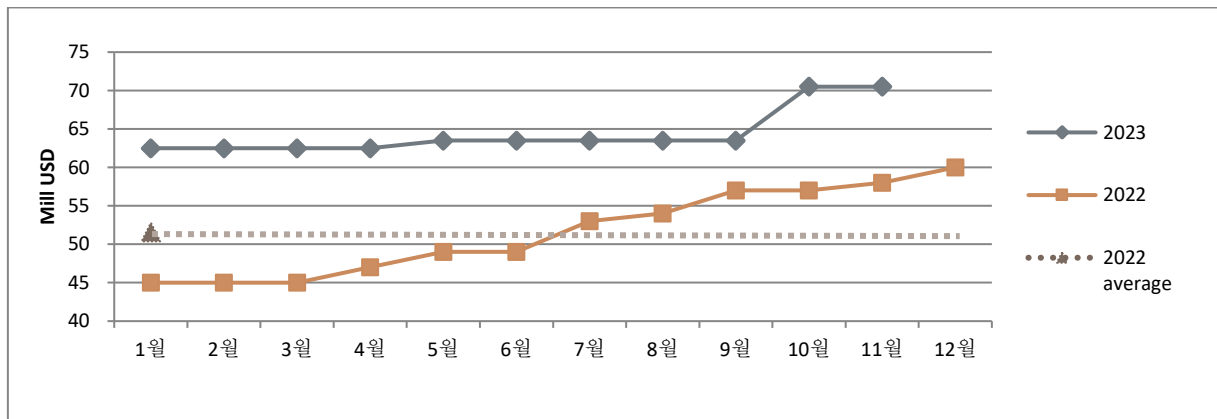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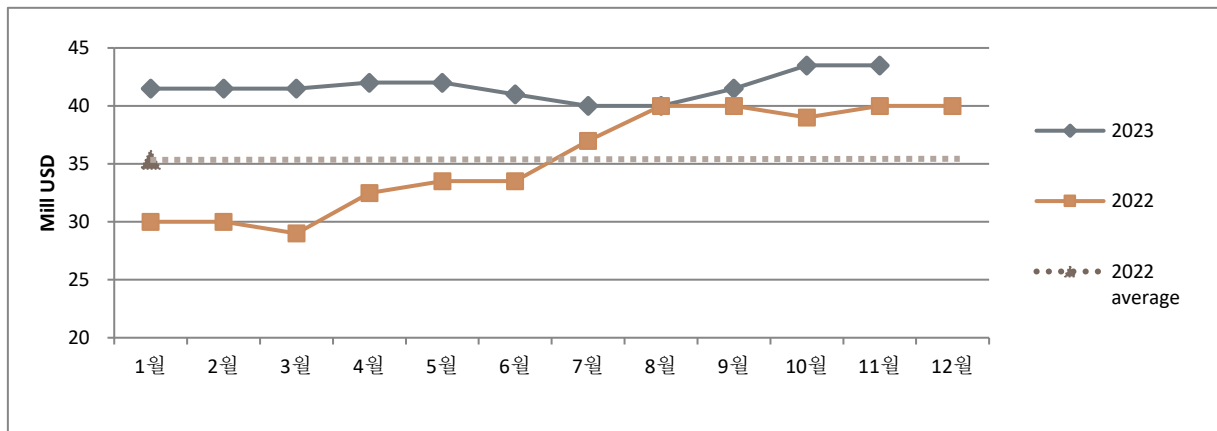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KS DOKKA	119,950	2010	KOREA	B&W			
TANKER	SKS DEMINI	119,456	2012	KOREA	B&W			
TANKER	SKS DONGGANG	119,456	2011	KOREA	B&W			
TANKER	SKS DODA	119,456	2011	KOREA	B&W		399-8EB	Danish buyer (TORM A/S), eco-engine, epoxy coated
TANKER	SKS DEE	119,456	2010	KOREA	B&W			
TANKER	SKS DELTA	119,456	2010	KOREA	B&W			
TANKER	SKS DOYLES	119,456	2010	KOREA	B&W			
TANKER	SKS DOURO	119,456	2010	KOREA	B&W			
TANKER	CONCORD EXPRESS	111,920	2003	KOREA	B&W		26	U.A.E. buyer
TANKER	TORM MARINA	109,672	2007	CHINA	B&W		36.5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epoxy coated
TANKER	SILVER	107,507	2010	JAPAN	B&W		--	Azerbaijani buyer, epoxy coated
TANKER	TORM ESTRID	74,999	2004	KOREA	B&W		19.5	Chinese buyer, epoxy coated
TANKER	TORM ISMINI	74,999	2004	KOREA	B&W		20.5	
OIL/CHEM	SEAWAYS LORAIN	51,218	2008	KOREA	B&W		24.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FALCON SEXTANT	50,994	2009	KOREA	B&W	2	25.4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MONAX	20,762	2005	JAPAN	B&W	2	13.5	Greek buyer (Stainless Tankers), stst
OIL/CHEM	MARMOTAS	19,953	2005	JAPAN	B&W	2&3	13.5	
OIL/CHEM	ENFORD	16,886	2012	CHINA	B&W		14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KENRICK	16,788	2012	CHINA	B&W		14	



III. TANKER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S PETRA	34,314	2004	KOREA	SULZER	2556	TEU	--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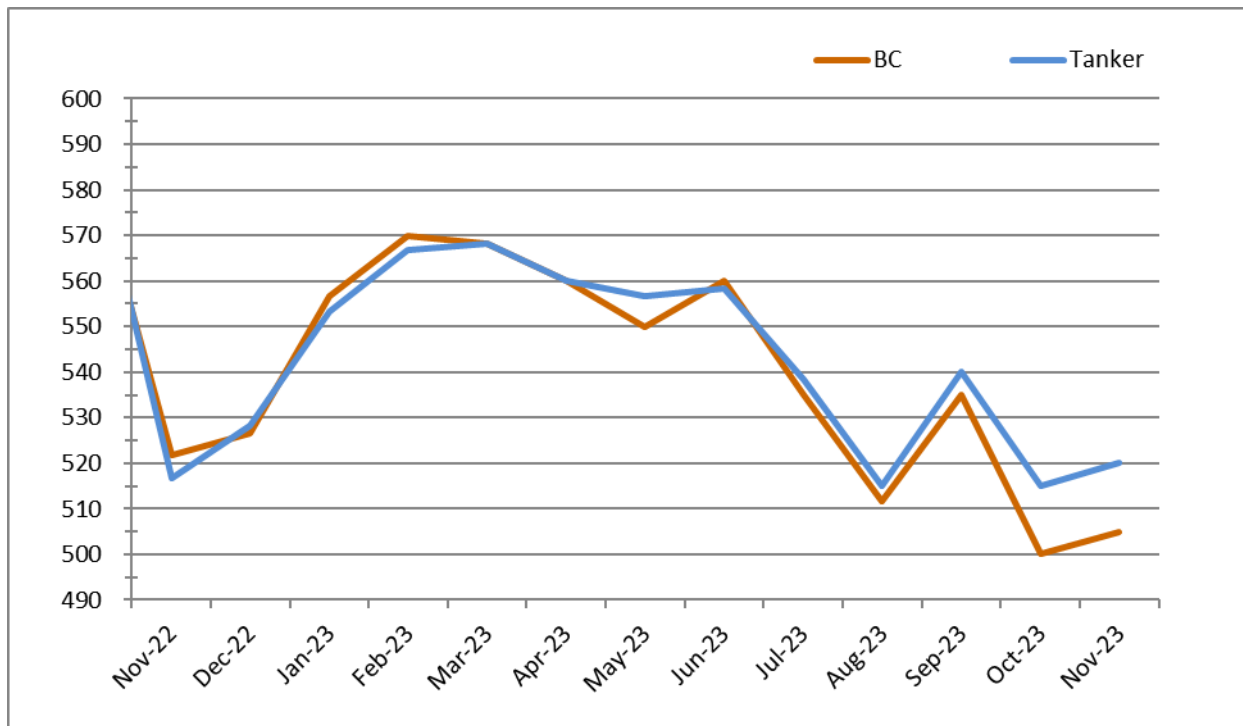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11	2023.11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44.70	-7.7%	516.67	520.00	-3.7%	0.6%
BC	529.17	53.6%	588.56	70.8%	541.06	-8.1%	521.67	505.00	-5.6%	-3.2%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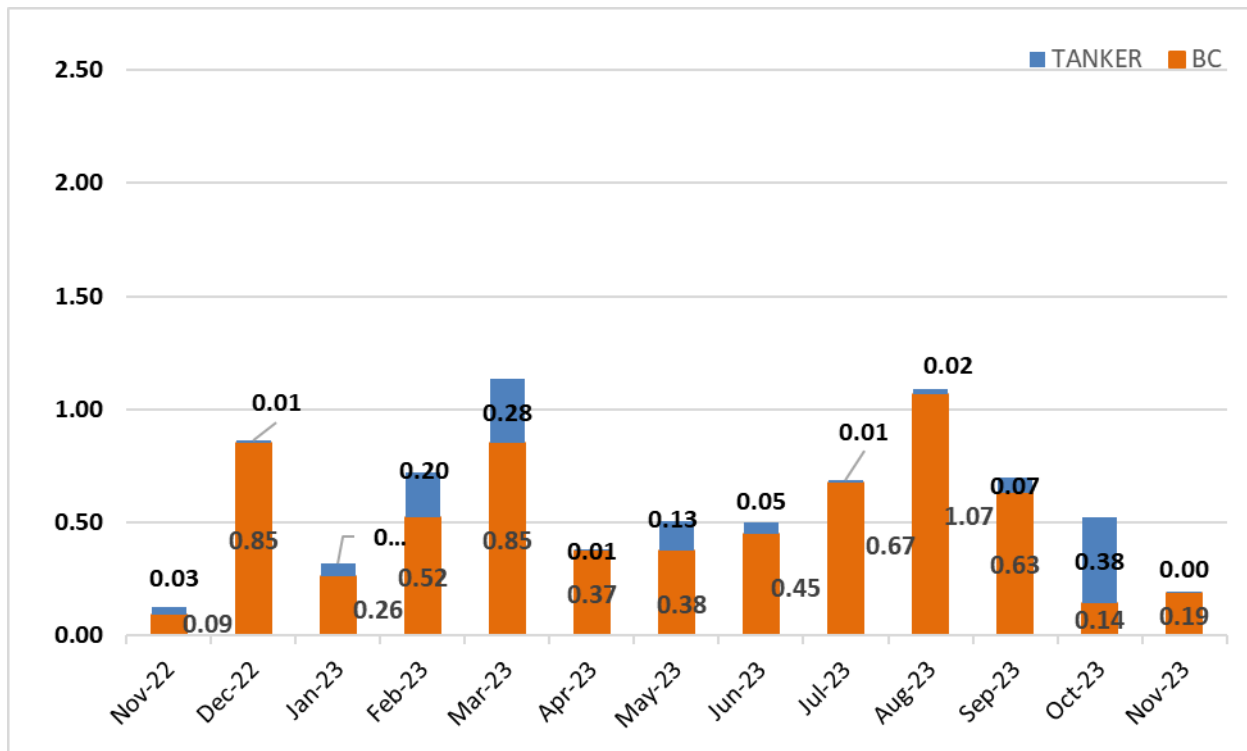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11		2023.11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03	1	0.00	-85.2%	5	400.0%
*BC	6.34	123	4.48	63	0.09	2	0.19	104.2%	14	600.0%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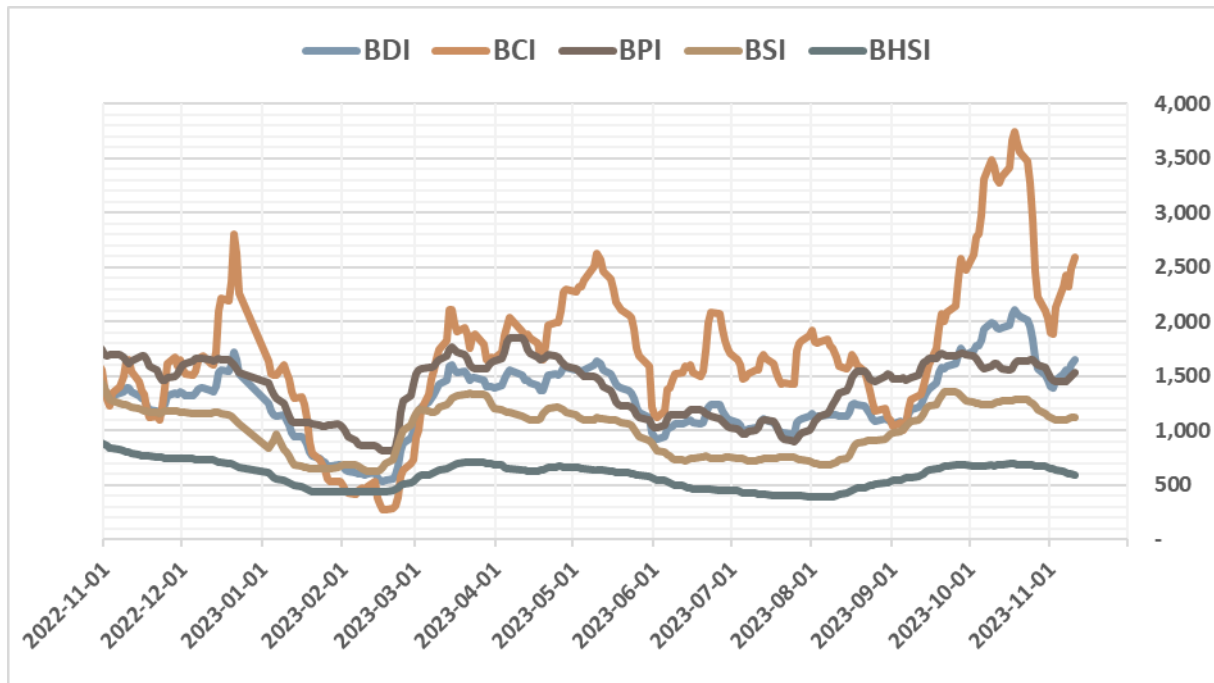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CATHERINE BRIGHT	77,828	10,962	1998	JAPAN	B&W	535	INDIAN
BC	WU YANG GODDESS	45,700	7,527	1995	JAPAN	B&W	480	"AS IS" CHINA, incl. 500T bunkers
GC	BONTRUP MALDIVES	42,913	10,965	1984	KOREA	B&W	547	INDIAN, incl. 350T bunkers, HKC recycling
TANKER	GAS DOLLART	5,688	2,491	1990	NETHERLAND	MAK	700	INDIAN
CONT	MSC CHIARA	41,815	13,933	1987	FINLAND	SULZ	537	INDIAN, incl. 350T bunkers, HKC recycling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3-11-10	2023-11-03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643	1,462	▲181.00	2,105	530
BCI	2,589	2,133	▲456.00	3,749	271
BPI	1,530	1,448	▲82.00	2,235	809
BSI	1,125	1,101	▲24.00	1,714	625
BHSI	594	634	▼40.00	1,034	389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79.00	▼15.00	571.00	▼33.00	574.00	▼32.00
MGO	781.00	▼85.00	782.00	▼94.50	845.50	▼67.00
LSMGO	778.50	▼87.50	780.50	▼96.00	-	-
IFO380	460.00	▼21.50	471.00	▼51.00	466.00	▼30.50

❖기준일 : 11 월 10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3-11-10	2023-11-03	CHANGE
미국 USD	1309.00	1343.20	▼34.20
영국 GBP	1599.60	1638.17	▼38.57
유로 EUR	1396.31	1426.08	▼29.77
중국 CNY	179.36	183.20	▼3.84
일본 JPY (100)	864.94	892.67	▼27.73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디토소비

◆ 디토소비란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유통 채널 등을 추종해 제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 '마찬가지', '나도'라는 뜻을 가진 디토(Ditto)에서 착안한 용어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새롭게 소개됐다.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방점을 뒀 가격과 만족도 등을 꼼꼼하게 따져 소비하는 '가치 소비'에 반대적인 단어다.

최근 소비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부상한 인플루언서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따르는 팬들의 소비 또한 디토소비의 일종이다.

유통 업체도 디토소비 문화 확산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AI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선호도 등을 분석하는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집객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AI를 통해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Ai 템즈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업스테이지와 협업을 통해 개인화된 AI 상품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커머스인 롯데온의 구매 전환율이 30%가량 개선됐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Marino Hwang(황 재 응) President T. 070-7771-6400			
Fleet & Chartering Operation biz@stlkorea.com	Sancho Kim(김 현 진)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H.S. Lee(이 현 성) Director T. 070-7771-6412	
	Mike Hong(홍 창 목) Director T. 070-7771-6417	Henry S.H. Oh(오 수 현)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Anna Lee(이 혜 란) Manager T. 070-7771-6403	Joovi Park(박 주 비)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Jennifer Park(박 영 단) Manager T. 070-7771-6407	Hayden Son(손 호 영)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안 지 영)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Joanne Jin(진 정 식)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Sale and Purchase Broking snp@stlkorea.com	Neal S.I. Kwon(권 순 일) President T. 070-7771-6410		
	Jack Kim(김 종 수) Director T. 070-7771-6411	Nova Cha(차 혜 정)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